



◇ 흑인촌에 마련한 아파트에는 법회 때마다 수십명의 불자들이 모여 참선을 지도받았다.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지구촌 전법이야기

승산 스님 ①

미국행 비행기에서 만났던 김정선 교수를 다시 만난 것은 보스톤에서 1시간가량 차를 달린 후였다. 그곳의 학생 너댓명이 미리 교수의 집에 와 있는 것을 보고 행원스님은 놀랐다.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이 오신다니까 이렇게 학생들까지 찾아왔군요. 다들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김교수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스님과 학생들사이에도 간단한 인사가 치러졌다. 그리고는 스님을 중

가부좌를 틀면 학생들이 그것을 따라했다. 죽비 소리에 맞춰 앉고 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으로 참선을 지도하는 데는 아무래도 답답한 그 무엇이 있었다.

왜 그렇게 앉고 앉아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설명을 해야 했다. 법공공이긴 했지만 최면술을 조금씩 써가며 학생들에게 단전호흡법

있는 사람의 6백~7백분에 비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달리 향연할 문도 벽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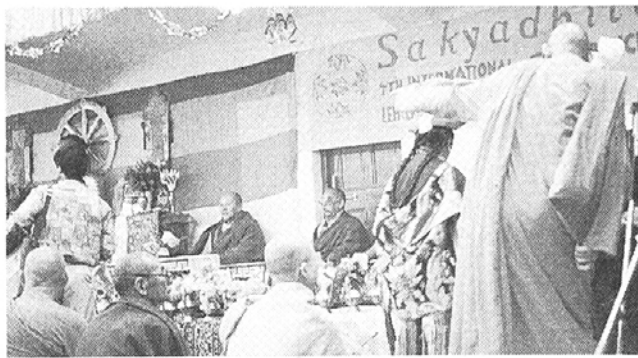
반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지나 갔어도 지루하지 않았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에게 참선을 가르치고 금요일 밤에는 정기법회를 가지며 지내는 동안 아예 스님의 법당에 들어와 살겠다는 사람도 한 두 사람씩 생겼다.

"마음 자리를 하나로 하려는데 같이 못 살 것도 없지. 들어와 살도록 해요."

스님과 그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 함께 예불하고 참선

□ 인도 라닥 제4차 세계여성불교도대회

21세기 새 여성불자상 모색



◇ 인도인 라닥의 마하보디국제여성센터에서 열린 세계여성불교도대회는 여성 불자들의 화합과 역할정진을 한층 앞당겼다.

남방 비구니 종단결성등 연대방안 열띤 토론

20개국서 2백여 여성불자 참가

제 4차 세계여성불교도대회(Sakyadhita)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북인도 라닥에서 국제여성불교도연합(IABW), 라닥신도회, 라닥여성신도회의 주최로 개최됐다.

"21세기의 여성과 자비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 태국,일본, 독일 등 20개국 2백여명이 참여해 불교여성성직자의 변화·불교, 여성 그리고 정의·테라바다전통에서의 비구니종단의 잃어버린 역사·티벳에서의 여성과 불교·전통과 적응(서구사

Buddhism Research)를 결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임 회장에 스리랑카대표인 라자니 드 실바, 신임부회장에 일본인 히로코 카와 나미가 각각 선출됐으며 서기에는 까르마 렉수 소모가 재임했다.

한편 티벳승왕인 달라이라마는 특별 메시지를 보내 "세계여성불교도대회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가 있을 희망하며 세계여성불교도의 더욱 굳건한 연대와 수행으로 불교교의 막대한 책무를 다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은자 기자

윤월스님 참가기



◇ 윤월스님

세계여성불교도대회가 열린 북인도의 라닥은 고도 3천8백미터의 고산지대에 다시 사방이 석산으로 둘러싸이고 그 위로 파아란 하늘이 유난히도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다.

옛부터 티벳불교의 영향을 받아 티벳문화와 불교문화가 젖어있는 라닥은 민족춤까지도 스님들께 공양올리는 모습을 묘사하였다고 하니 그대로 불국토인 듯 했다. 가정마다 불단을 모신 방이 따로 있었고 아침 저녁로 정수 공양을 올리며 일년에 적어도 한번은 스님들께 공양 청해서 하루종일 경을 읽는다고 한다. 그곳 라

계를 설명한 '불교와 여성건강' 강의, 정신적인 방황을 겪고 있는 서구인들이 참선등 불교의 수행방법으로 정신치료를 돕는다는 '불교와 심리요법의 접합' 강의 등이 특히 시선을 끌었다.

또한 '전통과 적응(서구사회의 불교정착)'에서는 불교에 심취해 출가하려는 서구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이를 위한 방법안과 출가후 수행자로서의 정착하기까지의 대책 부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식 수계와 교육, 출가후의 안정적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주제강연후 토의를 통해 올 겨울쯤 이를 위한 실무자들의 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의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대회에서 회장에 새로 선출된 스리랑카의 라자니 드 실바는 세계여성불교도대회의 활성화화를 위해 사카디타의 회원을 확대, 그 역량을 키워

건강·수행·일상생활등 다양한 주제설정 돋보여

다의 남쪽에 위치한 마하보디 국제여성센터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세계여성불교도대회가 개최됐다. 8월 1일 대회 첫날 민속악단과 무용대의 시나리오를 따라 개최장소인 마하보디 국제여성센터까지 카 퍼레이드를 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세계 여성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에서는 나

를 비롯 3명의 비구니 스님이 참가했지만 고산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 나 혼자 끝까지 대회에 참가할 수 밖에 없었다.

새벽에는 참선을 하고 아침 공양후에는 세미나가 계속되었으며 오후 공양후에는 각 나라의 전통예불이 진행됐다. 나 또한 5일 저녁에 한국전통식 오분향과 반야심경으로 예불을 하기도 했다.

세계 20개국에서 온 2백여 명의 여성불자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주제강연이 펼쳐져 많은 관심을 끌었다. 생태의학적 측면에서 출가수행자의 정신적 생리적 관

사회봉사등 현실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계속되는 강연과 토의 일정 속에서도 각국의 참가자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이란 마음으로 자기 나라의 전통무용을 선보이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이야기등 일상생활이야기로 서로간의 벽을 허물었다. 또 옛날 예수가 수행했다고 전해지는 라닥의 중요 성지인 헤미스프과 사원을 방문해 아미타부처님의 원만한신상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발심을 내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모처럼 세계여성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민을 토론했고 불교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한 소중한 기회였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한국의 비구니스님들과 여성불자들도 이같은 행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느껴졌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써 한국불교를 더욱 널리 알리려 한다는 생각을 했다. (동국대학교원 선학과 박사과정)

부처님 가르침 통한 세계평화 여성역할 증진 추구

세계여성불교도 대회란

국제 여성 불교도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 IABW)이 주최가 되어 거행하는 행사로 일명 사카디타(Sakyadhita, 부처님의 딸들)라고도 불린다.

국제여성불교도연합은 지난 1987년 인도의 보드가야에서 태국불교학자 차수만 카비성 박사, 티벳불교에 귀의한 미국인 까르마 렉수 소모, 태국불교에 귀의한 독일인 아야케마 등 3인에 의해 주도 결성됐다.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으로 세계평화 증진·여성불자들의 정보교환체 형성·다양한 불교전통사이의 화합과 이해증진·여성의 교육과 수행시설의 개선과 개설·불교에서 승가의 계율과 여성의 역할 연구 등 다양한 목적

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된 모임이다. 제2차 대회는 1991년 방콕에서 '다양성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제 3차 대회는 93년 스리랑카에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불교여성'이란 주제로 열렸다.

여성불교도라면 누구나 이 사카디타의 회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사카디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1년에 10달러의 회비를 내면 사카디타의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각종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주소 : Sakyadhita
400 Hobron Lane, #2615
Honolulu, Hawaii 96815
USA

시주없이 세탁소에 취직... 방문 신도 갈수록 늘어 좁은 아파트 합숙하며 참선지도

심으로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실은 이야기를 나눴다가 보니 "불교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교수의 질문에 대해 행원스님이 법문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금방 깨지고 말았다. 행원스님이 '선이란 무엇인가' '불립문자' '불립문자'란 말은 무슨 의미나'를 이야기 하면 그 통역사 김교수가 하는데 의미가 바르게 전달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을 가르치는 한편으로 간단한 말로 선(禪)의 목적 등을 설명했다. 통역하는 김교수도 무척 힘들었지만 내색은 않고 늘 즐거운 표정이었다. 다시 흑인촌으로 아파트를 옮겼는데 참선을 배우러 찾아오는 신자가 30여명이나 됐다. 그곳에 브라

하고 그렇게 단체생활을 했던 것이다. 믿어 많다니 먹거리의 소모도 mind가 없었다. 밥에 두부와 김치와 물을 넣고 끓여 주어도 그들은 맛있게 먹었다.

"스님, 오늘은 저희가 식사를 짓겠습니다."

"그래 보시오."

그들은 빵이나 우유등을 장만하고 쌀을 구해다 밥을 짓기도 했는데 제법 밥이 잘 되었다. 함께 살면서 간단한 말과 몸짓의 의사소통만 가능해 진 것이 아니라 밥 짓는 일까지 배우게 된 것이나 같았다. 그런데 그 잘된 밥을 그릇에 퍼담은 한 제자가 다시 물을 붓더니 끓여내었다.

하기야 '언어도단'과 '불립문자'의 뜻을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되지 못할 일이기도 했다. 불교를 가르치는 이야기관은 깨졌지만 학생들은 스님과 좀더 오래 만나며 조금씩 배우고 싶다고 청했다. 이미 미국국교에 뜻을 세운 뒤인데 무엇을 망설일 것인가. 행원스님은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내었다. 그리고는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참선을 지도했다. 역시 말이 안통하는게 큰 어려움이였다. 스님이 아무말 없이 방식을 깔고

프렌드 교수가 일본말에 능했던 것이 스님에게만 반가운 일일 수 없었다. 30여명의 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반가움이었다. 이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스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스님이 일본말로 된가를 얘기하면 프렌드교수는 담백에 그것을 영어로 옮겨 듣는 이의 귀를 열어 주었던 것이다.

매주 아파트가 메어지도록 사람들이 몰려왔다. 50명, 60명, 90명... 이렇게 참가자가 많은 법회를 열어나가다 보니 살림살이가 궁핍해 질

않고 그렇게 단체생활을 했던 것이다. 믿어 많다니 먹거리의 소모도 mind가 없었다. 밥에 두부와 김치와 물을 넣고 끓여 주어도 그들은 맛있게 먹었다.

"스님, 오늘은 저희가 식사를 짓겠습니다."

"그래 보시오."

그들은 빵이나 우유등을 장만하고 쌀을 구해다 밥을 짓기도 했는데 제법 밥이 잘 되었다. 함께 살면서 간단한 말과 몸짓의 의사소통만 가능해 진 것이 아니라 밥 짓는 일까지 배우게 된 것이나 같았다. 그런데 그 잘된 밥을 그릇에 퍼담은 한 제자가 다시 물을 붓더니 끓여내었다.

"아니 밥 잘 지어서 이게 뭐야." 의아해 하는 스님께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전에 스님이 이렇게 끓는 물을 부어 드셨잖아요."

"하하하, 그것은 찬밥이어서 그렇게 먹은 것이지..."

임연태 기자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버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백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소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집착도 변민도 없는 무상도의 세계, 구름 너머 저 멀리, 깨달음의 발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지친 우리에게 생음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곡권 432면, 값 7,000원

〈범구경〉은 나를 완전히 받아버렸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범구경 ①②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탄트라비전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를 모른다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차원 높은 지적 유해가 바로 신(神)입니다. 이 존재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인성(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용머리를 부처의 용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입니다.

임 RINZAI 제	조 JOSHU 주	마 MATZU 조
------------------	-----------------	-----------------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곡권 / 각권 값 5,000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736 대표전화 927-2831 팩스 924-3236